



2025년까지 전국 양파·마늘 주산지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확대

-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, 함양군 양파 기계 수확 현장 방문 -

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월 15일(목) 오후, 양파 수확 현장(함양군)을 방문하여 양파 줄기절단작업, 굴취작업, 수집작업 등 기계 수확과정을 점검하고 농업인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.

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“우리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할 때, 인력 문제 해결 대안으로 발농업 분야 기계화를 제고가 시급한 상황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이를 위해 정부는 “63.3% 수준인 발농업 기계화율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.”라고 하면서, “2025년까지 전국의 양파·마늘 주산지 27개(양파 13개, 마늘 14) 전지역에 기계화 우수모델을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거의 100% 기계화가 완료된 논농업에 비해 발농업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양파·마늘은 수확기인 매년 5~6월이면 농업 일손 부족 문제가 있으나, 주산지를 중심으로 양파·마늘의 기계화가 개선되면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정황근 장관은 “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(농진청·농협·지자체 등) 협업으로 정례 추진현황 점검 및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우수모델 지역의 기계화 생산성 및 경제성 분석도 추진하겠다.”라고 말하면서, “정부에서 발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”를 당부하였다.

붙임 발농업 기계화 추진 계획

담당 부서	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총자과	책임자	과 장	문태섭 (044-201-1891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진 (044-201-1840)

- ◇ 발농업 기계화율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
- ◇ '25년까지 양파·마늘* 주산지 27개(양파 13개, 마늘 14개) 전지역의 기계화 추진, 이후 타 발작물로 확대
- * 농작업기 인력 수요 집중도, 전과정 농기계 既 개발된 상황을 고려

□ (우수모델) 전국 27개 양파·마늘 주산지에 우수모델 적용

- 주산지 지자체와 협업하여 토질(점질·모래질 등), 재배형태(논·밭) 등 분석을 통해 '25년까지 양파·마늘 주산지 기계화 추진
 - * 연도별 우수모델 확대: ('22) 4개 지역 → ('23) 6 → ('24) 15 → ('25) 27
 - 우수모델 육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에 농기계(파종·정식·수확기 등) 및 기계화 기반 조성비(육묘시설·메쉬파렛트·톤백) 등 지원
 -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(농진청·농협·지자체 등)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례 추진현황 점검, 개선사항 발굴 등 추진
- 기계화 확산을 위한 생산성 및 경제성 분석 실시, 기계화 표준 모델 개발 및 농기계 실증을 통한 현장 맞춤형 농기계 개발
 - *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농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지역농협의 농작업 대행 확대
- 기존 참여 지역은 신규 지자체의 기계화 연착륙을 위해, 육묘기술 전수, 기계화 재배방법 등 교육 지원

□ (저장·선별·유통) 양파 기계 수확 대량 저장 시설 지원(스마트 APC 구축)

- (저장·포장) 양파 주산지에 대량 벌크거래, 자동 소포장이 가능한 스마트 APC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 기계화
 - 열풍 큐어링, 차압식 송풍시설, 벌크 단위 자동 덩핑·선별·포장기 등 양파 생산·수확 기계화와 연결된 APC 설비 구비 조건으로 지원
 - * APC지원: ('23) 15개소 → ('24) 30
 - 특히, 자동 포장기 도입을 통해 소비지에서 원하는 다양한 규격(소포장, 망포장, 톤백 등)으로 출하하여 산지 부가가치 제고
- (온라인도매시장 연계) 11월 개설되는 온라인도매시장에 APC가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여 대형마트·소매점 등 소비지 직거래 확대